

특별회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면하는 불평등

편견, 차별 그리고 환대

최은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청년위원장]

여러분은 북한이탈주민과 대면 또는 소통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란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국 각지에 살고 계신 북한이탈주민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만난 후, 그분들이 살아 온 여정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해마다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및 북한사회변동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 조사 자료는 다수의 학술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및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위 업무를 수행하며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몸을 실을 때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만나게 될까,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때론 전화 목소리와 전혀 다른 느낌의 이탈주민분을 뵈어 당황하기도 했고, 때론 인터뷰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 사는 가족을 등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홀로 남한에 온 20대 청년이 제 앞에서 2시간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남한으로 오길 선택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며,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며 평평 우는 청년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원으로 복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남한이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 중 북한이탈주민이 마주하는 편견과 차별의 민낯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는 순간입니다.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는 제게,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관련 설문 작성이 모두 종료되자 일을 하며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말하자, A씨가 꺼낸 이야기는 실장님으로 불리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A씨와 중국집에서 함께 근무 중인 그 여성은 홀 운영을 담당하는 실장인데, A씨의 출퇴근 길이 낯설고 힘들 테니 차로 바래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A씨는 무척 고마운 마음으로 타고 다니던 중, 한 달 치 교통비를 달라는 실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A씨를 통해 접한 실장의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너를 위해 1시간가량 시간을 썼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덧붙여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고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A씨의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이란 여성을 향한 분노가 일기 전에, 깊은 부끄러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남한사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향해 악한 행동을 하는 실장의 모습이 민망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녀가 A씨를 향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A씨를 자신보다 약한 존재로 생각하며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것은 아닐까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가 예전과 다르게 점점 더 거래 지향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하나의 공동체에서 사는 똑같은 구성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권력에 따른 가치 판단을 하다 보니 여러 형태의 갑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현 사회의 갑질 양상을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원하는 걸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많으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나타난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주 이야기를 들으며, 주 6일을 일하면서 하루 10시간~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앞에 좌절하며, 북한이탈주민이란 꼬리표가 붙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택역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던 B씨가 제게 멋쩍은 웃음과 함께 건넸던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선생님 만나다고 한 달 만에 처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랑 마주 앉아 말하는 것도 한 달 만이에요. 이러다가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까 봐서 걱정이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고립과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은 세계 공통의 이슈입니다. 일본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미국은 협동조합 형태의 NORC 프로그램(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을 26개 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웹사이트에 등록된 시민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독거노인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덴마크는 ‘코하우징’과 같은 주거공동체에서 주방·식당·세탁실 등의 공간을 함께 쓰며 이웃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까지 표현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아파할 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기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립 및 단절되어 있었기에, 목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혐오의 근거로 둔갑하는 오늘날, ‘절대적 환대’란 무엇일지 많은 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향한 환대는 곧 모든 낯선 존재를 반기는 일이기에,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책 [사람, 장소, 환대 - 김현경 지음/문학과지성사]에 나온 저자의 질문을 공유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인가?”

“우리는 과연, 적대적인 타자까지도 환대할 수 있는가?”